민족문화연구 “한국 전문 사전 편찬의 현재와 미래” 특집의 말

사전은 해당 학문 영역의 축적된 지식을 총체적으로 보여 줌과 동시에 학문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19세기 말에 서구 사전의 체계를 갖춘 한국어 대역사전이 편찬된 이래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전이 편찬되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형성된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학문을 발전시켜왔다. 최근에는 정보처리 기술이 발달하고 사전학의 연구 기반이 공고해지면서 사전 편찬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사전으로 간행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2000년 이후 지식 정보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고급 이용자를 위한 사전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자사전과 같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사전의 간행이 증가하고 있다.

학문의 전문화와 대중화에 발맞추어 사전 편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식과 정보의 체계적 정리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자체에 대한 거시적인 평가와 분석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세기 학문의 축적과 발전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해당 학문 분야의 지식을 축적해 놓은 사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국내에서 출간된 사전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메타사전학적 정보조차 구축되지 못하여 기존에 축적된 학문적 성과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번 특집에서는 학문 분과 및 전문 분야별 사전의 생성과 발전 과정을 살피고,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학문의 확산 및 융합 과정에 기여한 사전을 살펴보려는 목적을 두었다. 이번 특집에서는 교육학, 무형 문화재, 불교, 지명 등 네 분야와 관련된 전문 사전의 편찬 역사를 살피고자 하였다. 하여 네 편의 논문을 이번 호에 싣게 되었다. 각 논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신창호의 「교육학 분야 사전 편찬에 관한 고찰—1970년대 이후 주요 사전 편찬을 중심으로—」에서는 교육학 발전의 추세를 개관한 뒤 1970년대 들

어 본격적으로 교육학과가 설치되면서 교육학의 체계적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전제하였다. 이어 교육철학, 교육 방법,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공학 등의 세분화와 유아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등 영역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것이 교육학의 학문적 분류와 이론, 개념의 통일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곧 사전 편찬을 추동하는 힘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활용)교육대사전』, 『(최신)교육학대사전』, 『교육학 용어사전』, 『(알기 쉬운) 교육학 용어사전』,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교육공학 용어사전』, 『유아교육사전』,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교육평가 용어사전』등 총 9권의 교육학 사전에 대해 사전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상의 특징, 학문적 의의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김윤지는 「한국 무형문화재 관련 사전 편찬의 현황 및 방향」에서 개화기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한국 무형문화재 관련 사전 편찬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한국 무형문화재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뒤 무형문화재의 생성, 과정, 수용, 변용, 가치에 대해 사전 편찬 과정의 지식으로 정립되어야 함을 강조한 뒤 한국 무형문화재 관련 사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널리 알려진 『민속예술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Ⅳ』,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대해 정의, 편찬자 소개, 편찬 경위, 구성 및 내용, 자료 가치로 나눠 정치하게 기술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 무형문화재 사전' 편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전 편찬을 위한 미래적 프레임을 제안한 뒤 표제어 '승무'를 통해 집필 구조와 내용을 제시하였다.

조영미의 「한국 불교 사전 편찬 현황보고」에서는 한국 불교 사전의 편찬 흐름을 개괄, 정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 뒤에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가장 먼저 근현대 이후 편찬된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사전인 운허용하의 『불교사전』, 1982년에 출간된 『한국불교대사전』, 1989년에 출간된 『불전해설사전』, 한국 최초의 선학 전문 사전인 『선학사전』, 1999년에 출간된 『불교대사전』, 근 40년에 걸쳐 편찬 사업 중이며 불교종합대백과사전을 표방한 『가산불교대사림』에 대해 편찬 경위, 사전의 특징, 학술적 의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어 이들 불교 사전을 통해 불교 발전에 기여한 성과

를 정리하고 편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한계를 지적하면서 향후 개별 전문분과 사전이 편찬되어야 할 필요성과 사전 편찬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김기혁의 「한국의 지명사전 편찬 동향과 지향점」은 지리지와 지도, 지명사전의 관련성을 전제하고 광복 이후 편찬된 지명사전을 통해 지명이 사전으로 정리되는 모습과 지식 구성의 내용을 분석한 뒤 향후 국가 지명사전 편찬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다. 우선 한국 지명의 속성을 대상, 공간 특징, 명명과 변경, 기호 이미지, 지명 형태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구조화한 사전의 동향을 일제 강점기, 광복 이후로 구분하여 남북 각각의 지명 관리와 사전 편찬에 대해 개괄하였다. 남한의 경우 학술단체가 편찬한 주요 사전으로 한글학회가 편찬한 『한국지명총람』, 대한지리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요람』, 대한지리학회에서 남북한의 지명 유래를 정리하여 편찬한 『한국지명유래집』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개인이 편찬한 사전으로는 『한국지명연구』, 『한국지명사전』, 『지명대사전』을 선정하여 각각 사전의 특징, 편찬 경위, 학술적 의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에서 편찬된 『고장이름사전』, 『조선지명편람』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한 뒤 남북한 지명사전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가가 지명사전을 편찬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방향을 진정성, 표준화와 다양성의 조화, 외연 확장성을 제안하였다.

이번 특집에서는 우리나라 교육학 사전, 무형문화재 사전, 불교 사전, 지명 사전 등의 전문 사전이 어떻게 편찬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개별 분과에서 전문 사전 편찬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를 가늠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타 분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제 분야 학문 발전 과정에서 기여한 사전에 대해 다뤄보는 연구의 장을 계속 만들어갈 예정이다.